

「아세안+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」 참석

- 역내 금융안정 및 금융협력 주요 이슈 논의

3.29일(수) ~ 30일(목)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「아세안+3 (한·중·일)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(ASEAN+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' Meeting)」가 개최된다.

* 아세안 10개국.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

이번 회의는 5.2일(화)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+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(ASEAN+3 Finance Ministers' and Central Bank Governors' Meeting)에서 논의될 의제들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로서,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,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(CMIM*) 등 역내 금융협력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.

*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: ASEAN+3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(총 2,400억불 규모, 우리나라 분담금 384억불(분담비율 16%))

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·한국은행의 실무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한다.

우리 대표단은 역내외 경제동향 및 정책대응,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의 CMIM 발전 방향 등 역내 금융 안정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	책임자	과 장	범진완 (044-215-4830)
		담당자	사무관	이태운 (044-215-4833)